

어머니가 지각하는 한국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에 관한 질적 연구*

Qualitative Research on Korean Children's Difficult Temperament as Perceived by Their Mothers

천 희 영**

Chun, Hui Young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n perceived as difficult by their mothers and compared these characteristics with the "difficult temperament" from the NYLS. The subjects were 36 mothers who have more than one child between 3 and 6 years of age. The descriptions from in-depth interviews were analyzed qualitatively.

The results showed that (1) Korean mothers perceived the difficult temperament of their child as low adaptability, low rhythmicity in sleep habits, negative mood, and high activity. High response sensitivity was perceived as both a positive and a difficult characteristic. (2) The temperament of their children mothers perceived as most difficult for child rearing were negative mood and low manageability. (3) The activity, adaptability, rhythmicity, response sensitivity, mood and manageability characteristics of Korean children's difficult temperament was different from the difficult temperament of the Nyls.

I. 서 론

아동의 기질에 관한 연구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연구들이 아동의 적응에 대한 예언변인으로서의 기질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또 어떠한 기질 특성 또는 기질 유형이 아동의 발달 적응 과정에서 부모와의 관계에 기여하며 동시에 행동

문제와 같은 적응적 결과 발생 과정에서의 매개 역할을 하는지 주목되어 왔다. 특히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유형은 NYLS(New York Longitudinal Study)에서 부모면접을 통해 부모가 양육하기 힘들다고 보고한 특성과 임상적으로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동의 특성을 근거로 처음 제시된 이후 우리나라의 기질 연구에서도 주요 관심의

*1995년도 고신대학교 교내 연구비지원에 의한 연구임.

**고신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대상이 되었었다(천희영, 1996).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기질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 측면 즉, 기질의 특성과 측정방법에 관한 측면(Bates, 1980, 1990; Priors, Sanson, Carroll & Oberklaid, 1989; Sanson, Prior & Kyrios, 1990; Thomas, Chess & Korn, 1982), 기질 유형화를 위한 개념적 정의와 관련한 측면(Carey, 1986; Rogoff & Morelli, 1989; Rothbart, 1982; Super & Harkness, 1981, 1986)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까다로운 기질 유형과 아동의 발달적 적응간의 관계를 연구하기 보다는 개별 기질차원에 초점을 두거나 새로운 기질 유형화의 방법을 모색하여 연구하려는 경향을 발견할 수도 있었다(천희영, 1992).

그러나 까다로운 기질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나 역할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질과 적응변인간의 상관연구에 앞서 까다로운 기질 특성 자체에 관한 연구로써 이미 제기된 문제점들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첫째, 위의 두 번째 논의 측면과 관련하여 까다로운 기질유형의 정의 자체가 수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으로서, Bates(1980), Carey(1986)와 Rothbart(1982) 등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 NYLS에서의 까다로운 기질의 개념이 임상조건과의 관계에서 제시되었으나 임상조건에 선행하는 기질 특성이 까다로운 기질의 원래 집락과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또 발달의 변별적 접근(differential approach)에서 볼 때 아동의 연령에 따라 기질의 불연속적인 발달이 일어나고 문화적 맥락에 따라 기질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천희영, 1992; Super & Harkness, 1986). 둘째, 상관연구 결과의 해석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이같은 개념적 접근 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선행 상관연구들

의 결과는 더욱 잠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천희영에 의한 일련의 연구들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반응성 기질 차원은 우리나라 아동이 보이는 대조적인 기질 유형인 조절형과 조절 결함형의 특성 비교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1992), 반응성이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높았고(1993), 또 어머니에 의한 기질 적합성 평가에서 활동성, 생리적규칙성, 반응성과 정서성 등의 기질 적합성 차원에서 좋은 적합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995). 반응성 차원이 까다로운 기질의 특성을 대변하는 차원임에도 불구하고 적용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또 다른 예로는 활동성 기질차원에 관한 것으로 이 차원은 까다로운 기질특성을 결정하는 차원은 아니지만 여러 선행연구에서 긍정적인 적응을 예언하는 주 변인으로 그 중요성이 확인되고 있다(천희영, 1996)는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아동에서의 까다로운 기질과 적응간의 관계 연구는 까다로운 기질 자체에의 연구로부터 출발되고 그에 따라 해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까다로운 기질의 개념적 접근과 논의를 위해 어머니가 까다롭다고 지각하는 자녀의 기질 특성을 조사하는 것은 어머니의 지각이 아동의 내재적 특성인 까다로운 기질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채택되어야 할 듯 하다. 발달맥락적 조망에서는 아동의 신체적 개별성 뿐 아니라 기질을 포함하는 심리적 개별성이 아동을 사회화시키는 타인으로부터 상이한 반응들을 이끌어내며 이러한 반응이 아동에게 피드백되어 자신의 발달환경에서 개별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됨으로써 추후 발달의 기초가 형성된다는 순환적 관계(circular functions; Schneirla, 1957)를 가정한다(Lerner, J. V.

Lerner, Windle, Hooker, Lerner & East, 1986). 그렇다면 순환적 관계 속에서 어머니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까다롭다고 지각하는 자녀의 기질 특성은 아동 스스로의 까다로움을 유발하는 특성과 밀접히 연관된다고 볼 수 있어 어머니의 지각을 통한 까다로운 기질 특성에 접근하는 것은 타당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한편 어머니가 까다롭다고 지각하는 아동의 기질 특성이 무엇인지를 알기위한 방법은 평정척도를 이용한 방법이 있으나(Prior et al., 1989) 현상학적 입장을 취하는 질적 연구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질적 연구방법은 단순한 수량적 자료에 의존하기보다는 체계적이고 깊이있는 면접을 통해 어머니의 관점에서 주관적인 사고를 하며 어머니가 지각한 바를 왜곡시키지 않으면서도 경험적인 탐구가 가능한 연구방법이기 때문이다(신옥순, 1991).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본 연구는 자녀가 기질차원별로 극단적인 기질 특성¹⁾을 보인다면 어머니는 어떻게 지각할 것인지와 자녀의 양육에서 가장 까다롭다고 지각하는 특성을 질적 연구함으로써 한국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특성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같은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 1) 자녀가 기질 차원별로 극단적인 특성을 보인다면 어머니는 어떻게 지각할 것인가?
 - 2) 어머니가 자녀의 양육에서 가장 까다롭다고 지각하는 특성은 무엇인가?
 - 3) 한국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특성은 무엇인가?
- 다시 말해서 연구문제 1은 본 연구에서 채택한 기질의 5개 차원 각각에 대해 만약 자녀가 극단

적인 특성을 나타낸다면 어머니는 어떻게 지각할 것인지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연구문제 2는 현재 자녀가 보이는 기질을 포함한 여러 행동 특성들 중 어머니를 가장 힘들게 하는 특성이 무엇인지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이는 첫째, 본 연구에서 채택한 5개 기질 차원 중 어머니가 실제로 자녀에게서 가장 까다롭다고 지각하는 차원을 발견하고, 둘째 그 5개 차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특성을 발견함으로써 아동의 까다로운 특성을 이해하는데 기존의 측정도구로만으로는 측정했을 때 발견이 불가능한 특성을 발견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아울러 연구문제 3은 연구문제 1과 2에서 밝혀진 바를 토대로 한국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특성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의 ‘까다롭다’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까다롭다는 것은 지각하는 주체가 적용문제와 관련하여 까다롭게 또는 힘들게 지각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동에게 있어 기질이 까다롭다는 것은 그 아동의 기질 구인(construct)이 발달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유익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어머니에게 까다롭다는 것은 자녀와의 관계형성 과정에서 어머니가 적용하기 힘들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까다로운 기질의 개념과 중요성

발달의 개별적 접근(ipsative approach)을 주장하는 Thomas와 Chess(1977) 등은 일관된 행동패턴으로 기질을 정의하고, NYLS 종단적 연구를 통해 9개의 기질 구성차원을 밝혔다. 그리

1) 기질의 차원별 극단적인 특성은 까다로운 기질의 정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매우 낮은 적 응성과 생리적 규칙성, 매우 부정적인 정서성, 그리고 매우 높은 활동성과 반응성을 의미한다.

고 그 중 5개의 차원 즉 규칙성, 접근-철회성, 적응성, 반응강도, 기분의 질 차원에 기초하여 순한 아동, 까다로운 아동, 느린 아동 등의 3가지 기질유형을 발견하였다. 그 중에서 '까다로운 아동'(difficult child)은 생리적 주기가 불규칙하고 새로운 자극에 대해 철회적이며 적응성이 낮고 부정적인 기분과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느린 아동'(slow to warm up child)은 대체로 까다로운 기질의 특성과 일치하면서 반응이 격렬하지 않고 활동수준이 높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고 했다.

이러한 특성에 대안이 되는 정의로는 Bates, Freeland와 Lounsbury(1979)의 정의를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은 까다로운 기질을 '성가시며 까다로움'(fussy-difficult)으로 명명한 다음 성가심(fussiness), 순응성(soothability), 반응의 강도(intensity) 요인에 따라 판단이 가능한 기질 유형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요인들은 개별적 접근에서의 기분의 질, 반응의 강도 차원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인다(Bates, 1980). 이 외에도 Lamb과 그의 동료들(1988)은 화/좌절, 긍정적 정서성, 순응성 차원들으로써 까다로움의 조작적 측정을 시도한 바 있다(천희영, 1991b). 우리나라 아동의 기질 유형화 연구에서 천희영(1992)은 까다로운 기질에 거의 상응하는 조절 결함형을 발견하고 이 기질 유형은 적응성, 활동성, 생리적 규칙성, 반응성 및 정서성의 5개 기질 차원에서 모두 부정적인 특성을 갖는다고 보고 하였다. 따라서 NYLS 이후 까다로운 기질 및 그 상대적인 기질을 유형화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천희영, 1992),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할 때 까다로운 기질은 Thomas와 Chess에 의한 특성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기질 유형으로 분류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동의 기질과 발달적 적응간의 관계를

다룬 선행 연구들은 기질의 유형 중 특히 까다로운 기질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연구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분석 될 수 있다. 첫째, 까다로운 기질은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에 기여하는 것으로 중요시 되기 때문이다(Rothbart, 1982). 까다로운 기질은 어머니로 하여금 아동을 다루기 어렵게 함으로써 사회화의 대행자에 대한 아동의 영향 측면에서 중요하며 자녀양육의 문제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기질 유형인 것이다(Bates, 1980, 1987; Thomas, Chess & Birch, 1968). 둘째, 아동의 발달적 적응과의 관계를 고려할 수 있다. 즉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은 추후의 적응에 대한 중요 예언자로 인식된다는 것이다(Bates, 1987; Sanson et al., 1990). 구체적인 예를 들면, 순한 기질의 아동보다 까다로운 기질의 아동이 발달을 증진할 수 있는 환경적 자극의 이용 정도가 낮으며(Carey, 1983 in Sanson et al., 1990; Carey, 1986),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크고(Thomas & Chess, 1977), 변화나 어려움에 대해 더 취약하므로(Hetherington, Stanley-Hagan, & Anderson, 1989) 발달 장애의 위험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0여년간의 기질 관련 문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문제는 아동의 적응 특히 행동문제에서의 기질 역할이었고(Bates, 1990), 그 때 논의된 기질의 유형은 까다로운 기질이었다. 왜냐하면 NYLS를 비롯하여 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종단적인 기질 연구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까다로운 기질은 차후의 문제행동 발생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 되었으며(Cameron, 1978; Thomas et al., 1968) 이에 근거하여 행동장애 아동의 선별과 중재 프로그램의 기초가 마련되기 때문이다(Rothbart, 1982). 그러나 위험 요인으로서 까다로운 기질 자체가 아동의 병리적인 발달을 예언하는 것은 아님을 주목할 필

요가 있겠다. 발달에서의 상호작용적 관점에 비추어 볼 때 아동의 정상적·비정상적 발달은 주어진 기질 특성 즉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아동과 그의 가족내·외(intrafamilial·extrafamilial) 환경간의 상호작용 결과이므로 까다로운 기질과 같은 요인은 아동 행동문제 발생의 직접적인 요인이라기 보다는 발생의 과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Bates, 1990; Carey, 1986; Thomas et al., 1968, 1982). 즉 까다로운 기질 아동에서의 행동장애 발달의 위험이 큰 이유는 적응과 사회화를 위해 그들에게 부과되는 요구와 기대가 특히 스트레스를 주며, 또한 그들의 어머니들은 자녀의 행동에 대해 책임감과 어머니로서의 부적절함을 느껴 자녀에게 교란된(disturbed) 반응을 보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녀에게 병리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면, 기질의 여러 유형들 중에서 까다로운 기질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유는 아동의 발달 적응과정에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행동문제와 같은 적응적 결과 발생과정에서의 매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2. 까다로운 기질에 관한 논의점

까다로운 기질은 그 중요성 만큼이나 개념 자체에 관한 논의점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기질 특성으로서의 까다로움이 개인내적이며 객관적으로 정의가능한 특성인지 어머니의 주관적 지각에 의한 것인지의 문제로 측정의 신뢰도 뿐 아니라 까다로운 기질의 구인타당도에 관련되는 문제이다. 까다로운 기질의 개념이 어머니의 사회적 지각이라는 전제는 Bates(1980)에 의해 제시되었다. Bates(1980)는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와 행동적 장애 위기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서는 부모-자녀간 관계 패턴을 일반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는 이론에 근거한 가설의 검증(hypothesis-testing)보다는 가설을 일반화시키는(hypothesis-generating) 증거들을 수집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했다. 그리고 구체적인 예로써, 어머니의 지각에 의한 유아의 까다로움과 어머니-자녀 관계의 부정적인 측면과의 관계 유무에 대해 상치되는 연구결과들이 나오는 것은 까다로움의 지각에 개입된 어머니의 지각적 편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머니의 개인차 측면들 예를 들면, 어머니의 성격이나 배경 등을 고려하지 않은 때문으로 아동 발달과정에서 부모의 지각이 갖는 특수한 역할의 재고를 지적하였다. 유명희(1991)도 어머니의 SES 조건과 까다로움의 지각이 관련되므로 순전히 아동의 특성으로 까다로운 기질을 정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부모가 다루기 어려운 아동의 기질 특성이라고 Carey(1986)가 지적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의 기질 해석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Thomas와 그의 동료들(1982)은 Bates(1980)의 입장이 갖는 문제점으로 다음의 두가지를 지적했다. 먼저 부모의 지각을 아동의 특성(reality) 지각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Rorschach 검사의 한 특별 종류처럼 부모의 지각을 근본적으로 부모의 주관적 상태로 보아 부모의 지각과 아동의 기질은 상호영향을 미친다는 상호작용적 발달 관점에 맞지않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어느 하나(아동의 기질)을 다른 것(부모의 지각)의 파생변인으로 보는 것으로서, 유기체-환경의 상호작용과정에서 아동이 적극적 역할(active agent)을 한다는 개념에도 위배된다는 문제점이다. 최근에는 Bates(1990) 자신도 어머니에 의한 기질의 평정이 사회적 지각으로써 어떤 주관적인 요소를 갖는다 해도 역시 객관적인 요소를 가지며, 수년간 자녀를 어떻

게 보느냐를 단순히 지각적인 편견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또 초기의 까다로운 기질로부터 나중의 행동적응까지의 연속성이 부모-자녀 관계의 특성을 반영한다 해도 부분적으로 그 일관성이 아동의 생물학적 소인인 개인차를 반영한다는 것으로 자신의 입장을 수정하였다. 그러므로 Sanson과 그의 동료들(1994)의 견해와 같이 어머니로 하여금 다루기 어렵게 느끼도록 하는 까다로운 기질은 어머니의 지각에 따른 주관적 요인과 완전히 독립적이진 않더라도 아동 고유의 기질이라는 객관적 요인을 구인으로 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까다로운 기질의 개념에 관한 또다른 논의점은 어떠한 특성을 까다로운 기질로 볼 것이냐의 문제이다. Carey(1986)는 임상적 조건에 선행하는 기질의 특성이 NYLS에서 기술된 까다로움의 특성들을 나타내는 집락(cluster)과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까다로운 기질의 집락에 부차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던 나머지 하위차원, 예를 들면 주의지속성과 산만성, 반응역치는 유아기에는 거의 문제가 되지않으나 학령전기나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과제의 수행을 방해하는 특성으로, 활동성은 발달을 자극하는 특성으로 그 임상적 중요성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같은 결과는 진예봉(1993)의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 바 있다. Rothbart(1982)는 까다로운 기질의 개념은 까다로움이 나타나지 않는 영역에서도 행동문제를 예측하게 한다고 했다. 즉 단지 둘 혹은 세 개의 차원에서 극단적인 점수를 갖더라도 까다로운 기질로 분류된다는 것은 과연 어떤 행동을 까다로운 기질의 특성으로 고려해야할지의 문제를 과생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행동의 집단적 변량원이 되는 문화는 기질의 표현 및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Rogoff & Morelli, 1989; Super & Harkness 1981, 1986) 부모

에게 까다롭게 지각되는 기질 하위차원의 종류 및 하위차원의 특성은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아울러 기존의 까다로운 기질의 범주는 북미 중류층 가족의 자료(예를 들면, McDevitt & Carey, 1981)에서 나온 것이므로 사회계층에 따라서도 기질 특성은 다를 수 있다(Prior et al., 1989).

이상과 같은 지적들을 종합해 보면, 까다로운 기질은 아동의 상호작용적 발달과정에서의 적응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기질 유형이지만 그것이 갖는 개념적 주의점들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연구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아동의 기질과 적응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까다로운 기질 유형에 초점을 두되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지각한 까다로운 기질의 특성을 먼저 파악한 다음 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3세에서 6세 사이의 자녀를 적어도 1명 이상 둔 어머니 36명이었다. 이 시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를 선정한 이유는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 까다로운 기질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아동기 중 가족외적 환경에서의 사회적 적응이 요구되는 대표적인 장면인 유아교육기관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에 다니는 시기를 중심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중류층 아파트 2개 단지에 거주하는 이들 중 34명은 2명 또는 3명의 자녀를, 2명은 외동이 여아를 두고 있었으며 자녀들의 연령범위는 최고 10세에서 최저 20개월이었다. 어머니들의 평균연령은 32세였으며 학력 분포는 20명이 대졸 이상

의 학력을, 16명은 고졸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한 어머니와 시간제 일을 하는 어머니가 각 1명씩이었고 나머지 34명은 전업주부였다.

2. 심층면접

본 연구는 어머니가 까다롭다고 지각하는 아동의 기질 및 특성을 살펴보고자는 연구 목적에 따라 개별적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을 하였다. 이 방법은 개방형식의 질문을 통해 어머니들의 주관적인 지각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평정척도를 통한 순간적인 지각 판단 자료보다 신뢰로운 자료의 획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면접은 1995년 5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약 1개월간 이루어졌다. 약속된 면접일에 가까이 거주하는 2~3명을 단위로 하여 한 아동의 집에 어머니들을 모으고, 조용한 방에서 본 연구자가 개별 면접을 하였다. 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아동을 출산한 직후 기억에 남는 일을 묻고 기질의 차원별로 자녀의 특성을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보충 질문(prob-ing)을 하여 자녀의 기질 특성에 관련된 심도 있는 반응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면접에서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아동의 기질 차원으로 밝혀진 적응성, 활동성, 생리적규칙성, 반응성, 정서성을 중심으로(천희영, 1992), 만약 자녀가 각 차원에서 극단적인 특성을 보인다면 어머니는 어떻게 지각할 것인지 즉 얼마나 양육하기 힘들 것으로 지각하는가와 그 이유를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이때 단순히 각 기질차원의 정의로써 개방형 질문으로 묻고 필요하다면 기질평정척도에 포함되었던 주요 상황을 예로 들어 질문

함으로써 어머니의 경험과 관련지어 추론하도록 하였다. 둘째, 자녀가 키우기 어려운 아이인지 쉬운 아이인지를 4단계(매우 수월하다, 수월한 편이다, 힘든 편이다, 매우 힘들다)로 나누어 평가해 보게 하고 그 이유 즉, 자녀의 양육과정에서 가장 까다롭다고 또는 양육하기 힘든 것으로 생각되는 자녀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답하도록 하였다.

전체 면접 과정은 비밀보장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되었다. 어머니 1인당 면접은 25분내지 50분 정도 이루어졌으며 평균 면접시간은 38분이었다. 녹음된 내용을 전사하되 반응내용을 기록으로 옮기는 과정에서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면접시 본 연구자가 기록한 사항을 참고하였다.

3. 자료의 분석

심층면접으로 얻은 자료를 질적인 내용분석을 하기 위해 질문별 또는 기질차원별로 편집하였다. 그리고 연구문제별로 해당 전형적인 반응들을 중심으로 인용하고 논의하였다.

Ⅳ. 결과 및 해석

1. 기질차원별 극단적인 특성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자녀가 극단적인 기질특성을 보인다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를 답하도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참고로 어머니의 반응을 기질의 차원별로 긍정적 시각(양육하기가 힘들지 않거나 힘이 들더라도 기질 차원의 긍정적인 특성을 지칭한 경우)과 부정적 시각(양육하기 힘들)으로 나누어 정리하여, 〈부록 1〉에 제시하였다.

먼저 적응성 차원의 경우 연구대상 어머니 모

두가 만약 아이가 낯선 곳에 가거나, 낯선 사람을 만나거나, 또는 환경의 변화에 대해 적응을 잘 하지 못하면 어머니가 힘들 것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에게 계속 주의를 해야하거나 적응못한 아이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것이 힘들게 하는 원인으로 언급되었다.

아무래도 어렵겠죠. 무안하겠죠. 상대방 만났을 때 애가 막 뻘다든가 하면..., 저는 교회가서도 울면 많이 울리는(구토하는) 편이었거든요. (4세 남아의 어머니)

어울리는게 안 좋겠어예? (감정적으로만 속상한 게 아니고 몸도 힘들까요?²⁾어울리가(어울려서) 놀면 노는거 살펴만 보면 되는데 안 그러면 엄마한테 치대든가 힘 안들겠어예? (6세 여아의 어머니)

적응성이 낮다면 어머니 뿐만 아니라 아동 스스로도 전반적인 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는 반응과 함께 적응성이 지나치게 높다면 오히려 낯선 상황에서 어울리는데 도움이 되지않을 수도 있다는 반응도 있었다. 이 같은 반응은 아동에게 내재된 특성으로서의 기질이 까다롭다는 것을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힘들겠죠. 남자는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용화가 안 되면 혼자서 생활해야되니까 힘들겠죠. ○○는 그런 편은 아니니까 걱정 안하죠. (4세 남아의 어머니)

많이 힘들겠지요. 처음에야 어른도 좀 어색해 하나까다 마찬가지로겠지만 계속 그런다면 신경이 많이 쓰이겠지요.

항상 제한테 문제가 없는지, 울지나 않는지 봐야되고 또 다른 아이들에게 분위기를 해치거나 방해하는 아이가 되면 저도 애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되니까 안 좋고 엄마도 미안해지고 하겠지요. (4세 남아의 어머니)

○○는 처음보는 사람에게 불임성이 많아요. ○○는 아무한테나 막 드러눕고 좋게 말하면 사교성이 많고 불임성이 많아 좋은데 어떤 그런거 안 좋아하는 사람은 안 좋아하겠지예. (4세 여아의 어머니)

한편, 자신이 지각하는 자녀의 특성이 양육실제를 어렵게는 하지만 상대적인 평가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는 반응은 어머니가 질문지 형식으로 자녀기질 또 기질의 적합성을 평가하도록 요구받을 때 겪을 수 있는 내적 갈등을 보여 준다.

작은 애가 요즘은 좀 나아요. 그렇지만 애(언니)는 내 밖에 나가 놀아도 지(작은애)는 책상 밑에서 앉아서 조물락거리고 놀고 그러니까 엄마로서는 야(언니)하고 너무 대조적이니까 억수로(매우) 신경쓰이고, 그래서 유치원선 생님한테 몇 번이나 전화하고 전화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선생님이 신경쓰지 말라고 그러죠. 다른 애와 비교하니까 문제 없다는데 나는 우리 애하고 비교하니까 또 그렇더라구요.

2) 기질의 차원별 극단적인 특성은 까다로운 기질의 정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매우 낮은 적응성과 생리적 규칙성, 매우 부정적인 정서성, 그리고 매우 높은 활동성과 반응성을 의미한다.

(6세 여아의 어머니)

자녀가 놀이활동에서 보이는 움직임이나 가만히 있어야 할 상황에서의 움직임의 수준을 통해 평가할 수 있는 활동성 기질 차원의 경우, 활동수준이 높는데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어머니 수가 적응성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3명의 어머니는 움직임이 많은 것이 좋은 것으로 또는 오히려 활동수준이 낮으면 마음이 답답하고 더 걱정될 것으로 우려하는 반응을 보였는데 그 반응은 다음과 같다.

어릴 때는 여자 애라도 활동적인 것을 바래서 괜찮아요. 저는 여자라도 활동적인 아이가 좋아요. 애가 안 움직이면 안 좋을 것 같아요. (○○가 커서도 움직이는 편이고, 놀이도 몸을 많이 움직이는 놀이를 하고, 가만있지 못하고 움직이면 어떨까요?) 가만있지 못하는 건 문제가 되겠지만 가만있는 것 보다는 활동적인게 좋은 것 같아요.

(6세 여아의 어머니)

애는 너무 활동적이니까 괴롭거든요. 너무 안 움직여도 속상할 것 같아요. 안 움직이는 게 더 힘들거 같아요. 많이 움직이면 몸은 힘들어도 안 움직이면 마음적으로 힘들잖아요?

(4세 남아의 어머니)

또 이와 유사하게, 활동수준이 높다는 것이 어머니를 힘들게는 하겠지만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음을 언급하는 반응을 8명의 어머니로부터 얻을 수 있었다.

어릴 때는 좀 힘들겠지예. 번잡하고 활동적이고 하면... 엄마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크면 그런 성격이 명랑하고 활달하고

그렇겠지예. (어릴 때는 키우기가 힘들것 같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예. 요새는 학교에서도 너무 까불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싫어하겠지요. (6세 여아의 어머니)

대개 건강한 애가 그러죠. 어느 정도 적당한 봐줘야겠지요. 애들이 워낙 건강해서 힘을 분출하는 방법이니까. 어느 선에서 제재를 가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나치게 움직이는 건 힘들것 같다고요?) 예.

(5세 여아의 어머니)

이상과 같은 반응을 한 어머니들을 제외한 대다수(25명)의 어머니는 활동수준이 높은 아이가 어머니의 신경을 날카롭게 하거나 괴롭힌다고 지각함으로써 힘들게 하는 것으로 반응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아이 스스로에게도 많은 신체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거나 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맺지 못하게 함으로써 유익하지 않은 까다로운 특성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

얼마나 정신 사납고 힘들겠습니까? 책보거나 일할 때 놀다가 장난감 들고 들락날락하고 신발도 바꿔 신고 또 들락날락 하면 짜증이 나지요. 제재하고 나무라지고 문도 잠귀지고...

(4세 남아의 어머니)

몸은 심하죠. 너무 많이 움직여서 큰 일예요. 잠시를 가만히 안 있어요. 애기 때 인큐베이터에 들어 있을 때도 의사선생님이 너무 많이 움직여서 몸무게가 안한다고 했어요. 먹고 자고 그러면 좋을텐데... 지금도 그래요. 입도 잠시도 가만 안 있어요. (밥 먹을 때도 그래요?) 그래서 회초리를 옆에 갖다 놓죠. (차 타고 멀리 갈 때는 어떻습니까?) 그 때

는 아빠 차 타고 가는데 그 때도 많이 나부대고 해서 갔다와서 몸살이 나죠. 너무 나부대가지고.... 생긴 것부터 그렇죠.

(4세 남아의 어머니)

적당해야 하는데 엄마가 안 힘들겠어요? 늘 과격해서 사고도 많이 내고 때려서 남한테 피해도 많이 줄거고 그래서 힘들거 같은데 예.

(6세 남아의 어머니)

그러나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원인이 다른 집에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고 반응한 어머니가 20명으로 나타난 것은 주거환경이 아파트라는 물리적 환경 조건에 어머니의 지각이 영향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반영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만약 활동수준이 높다면'을 가정하도록 했을 때, 놀이 장면에서의 움직임보다는 위치 이동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움직임을 예로 들면서 이것이 힘들게 한다고 언급한 것은 행동장면이라는 맥락 역시 어머니 지각에의 영향 변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밖에서는 괜찮은데 밖에서 하는 행동이 집 안에까지 이어지면 우리만 사는게 아니니까... 안 그래도 애들 키운다고 힘들는데, 밖과 안에서 콘트롤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되고, 주택 같으면 우리끼리 사니까 괜찮은데 아파트니까요.

(4세 남아의 어머니)

너무 정신없이 그러면 정말 힘들지요. 노는 것도 어느 정도라야지. 또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할텐데 집안에서 똥 다른지 하면 고함올 안 칠 수가 없거든요. 고함을 쳐도 또 금새 뛰고, 애들도 다음에는 꼭 1층에서 살자고 하죠.

(4세 남아의 어머니)

아동의 생리적 주기의 규칙성에 관하여 개방적으로 질문하였을 때,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자녀가 특별히 음식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거의 없고 어머니가 챙겨서 음식을 먹이려고 노력하는 편이라 식욕의 규칙성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대·소변의 규칙성에 대해서는 1명의 어머니 외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수면의 규칙성에 초점을 맞춘 응답은 모든 어머니로부터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수면에 관한 행동패턴이 생리적 규칙성의 평가에 중요 역할을 한다고 생각되었다. 극단적인 생리적 불규칙성을 가정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자녀의 기질 특성에 따른 경험을 토대로 힘들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8명의 어머니, 그리고 불규칙적인 수면패턴이 자녀의 신체적 피로를 가져올 것으로 걱정한 4명의 어머니를 제외한 나머지 어머니들은 수면의 불규칙성 또는 불규칙성과 잠버릇이 어머니를 불편하게 할 것이라는 이유로 양육을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만약 불규칙하게 자고 하면 제가 좀 불편하겠죠. 밥도 같이 먹고 치워야 되는데 늦게 일어나 탄전 피우면 안 좋을 거고 밥도 잘 안 먹을거고. 먹는 거나 화장실 가는 건 불규칙적이라도 어쨌든 대충만 맞으면 건강에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고 대신 잠자고 일어나는 건 식구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일이니 힘들겠죠. 좀 불규칙적으로 자도 쉽게 잠들고 일어날 때 안 울고 하면 훨씬 수월할 것 같아요. (우리 애는) 어렸을 때 보면 잠은 쉽게 드는데 일어날 때 꼭 짜는 소리를 내면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아이구 또 시작이구나 싶죠.

(4세 남아의 어머니)

특히 자녀에게 유치원 등원과 같은 규칙적인 일과가 요구될 때는 수면의 불규칙성이 어머니를 힘들게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규칙적인 수면패턴이 어머니를 불편하게 하는 요인으로 고려될 수도 있었다.

○○는 늦게 일어나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유치원 안다니니까 많이 자면 내가 좋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냉장고 열고 먹는 편이거든요. 토요일 날은 늦게까지 자고 싶은데 7시 30분에 일어나서 설치거든요.(중략) 내가 불 일 있는데 늦게 일어나니 힘들더라고요. 내 필요에 따라서 늦게 일어났으면 해요.

(4세 남아의 어머니)

한편 약한 자극에도 민감하고 강하게 반응을 보이는 기질 특성인 반응성 차원의 경우, 모든 어머니들은 일관되게 반응의 민감성에 초점을 두고 언급하였고, 반응적 기질 특성을 어렵게 지각하는가의 판단 역시 이 차원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6명 중 과반수가 채 되지 않는 14명의 어머니가 자녀의 반응성이 높다면 반응에 따른 설명이나 요구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므로 자신이 힘들 것이라고 지각하였다.

그러면 엄마가 힘들겠지요. 조금 냄새가 나도 비위 상하고 빨아내고 하는 애가 있거든요. 우리 조카보면 그런데 엄마가 혼나더라고요. 냄새에 예민해요. 지나치면 힘들죠.

(6세 여아의 어머니)

그러면 힘들 것 같아요. 너무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그때 그때 설명도 해야 하고..., 우리 큰 애는 냄새에 굉장히 민감해요. 음식도 고기 굽는 냄새가 나면 “아, 엄마 좋은

냄새가 난다”하고 좋아하고 좀 이상한 반찬은 냄새 맡아보고 이상하면 안 먹어요. 그렇게 냄새가 중요 해요.

(4세 남아의 어머니)

또 자녀의 경우를 예로 들어 반응이 지적 호기심과 관련하여 민감하게 나타날 때 스스로의 사회적 관계에서는 불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는 요인으로 지각하는 어머니도 있었다.

선생님도 그러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부쩍 선생님 말씀하는 것마다 물고 늘어진대요. “선생님 그건 왜 그런데요?”, 끝이 없대요. 그래서 혼이 난대요. 저는 귀찮게 하고 물고 늘어지면 말 안하는데 선생님은 안 그러니 혼난 대요.

(6세 여아의 어머니)

자녀의 반응성이 높을 때 힘들 것이라고 지각하는 어머니의 수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인 22명의 어머니가 자녀의 맛·냄새 뿐 아니라 환경의 변화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그 공통적인 이유는 민감한 반응이 주변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의 표현이므로 인지 발달을 대변해 주는 특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었고 그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인지 발달에의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걱정할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민감한 반응성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 지각은 아동 자신의 인지 능력 면에서 반응성 기질 차원이 중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되었다.

민감하고 호기심이 좀 많고 그런 게 더 안 좋아요? (더 좋겠습니까?) 여행가서 잠 못 자고 하면 힘들 것 같지만 다른 매사, 새로운 물건에 호기심이 없으면 제가 더 답답할

것 같아요. (4세 여아의 어머니)

너무 예민해도 어려울 것 같은데 무딘 것보다는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을 쓴다든지 관심이 많다든지 그런거니까요. (4세 남아의 어머니)

만약 반응에 수반되는 정서상태가 부정적일 때 어머니가 힘들 것으로 지각하는가에 대하여 어머니 모두가 당연히 힘들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아이를 달래주고 아이가 문제라고 느끼는 것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다 보면 짜증이 난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으며, 이때 때리거나 심지어는 전문의를 찾아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반응도 나왔다.

지 스스로 적극적으로 할려고 하는데 퍼즐 맞추기 할 때 해도해도 안 맞으면 그런 때 막 성질내고 짜증내고 퍼즐을 막 이렇게 해 버리면 그 당시 내가 어떻게 해야될지 난감해요. (4세 여아의 어머니)

칭얼대고 하면 신경이 날카로와지지요. 나도 짜증이 나요. 우리 애도 항상 짜는 소리를 하거든요. 그냥 말로 하면 될텐데... 조금만 지 마음에 안 들어도 짤고 울고, 특히 집에 오면 피곤한데 궁금하고 사소한 일도 짜는 소리를 내면 화가 막 나요. (4세 남아의 어머니)

그러나 어머니 스스로가 자녀의 불쾌한 정서반응에 의해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거나 창피하게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힘들게 하는 기질 특성으로 지각하는 어머니도 있었다. 또한 자녀 스스로가 부정적인 정서에 의해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우리)국민학교 4학년짜리 애가요 지 기분 안 맞으면 힘들거든요. 지 방에 들어가 문 잠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괜히 신경을 안 쓸라해도 신경이 쓰이거든요. 제가 나 때문에 화가 났나싶고 내가 잘못된 게 있나해서 반성해지고 생각해 보고... 계속 그런 식으로 우울한 생활이 계속된다면 힘들겠지요.

(4세 남아의 어머니)

안 좋지요. 사람들이 저 애는 왜 저렇게 짜냐하면 (내가) 그거 듣기도 안 좋고, 자기가 짜다보면 친구하고 어울리지도 못할거고...

(5세 여아의 어머니)

2.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서 가장 까다롭다고 지각하는 특성

먼저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기 힘들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평가하도록 요청한 결과에 의하면 매우 힘든 것으로 4명, 힘든 편인 것으로 6명, 수월한 편으로 14명, 매우 수월할 것으로 12명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월하거나 매우 수월한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양육을 어렵게 하는 자녀의 특성을 비교하여 반응하도록 하였으나 매우 수월하다고 응답한 어머니 한 사람은 그래도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다고 하였다.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서 가장 까다롭다고 지각하는 자녀의 특성별 반응빈도는 〈부록 2〉에 제시되어 있다.

자녀의 특성 중 어머니를 가장 힘들게 하는 아동의 특성은 불쾌한 정서반응과 고집을 피우는 것이 12회씩 같은 비율로 많이 지적되었다. 고집을 피우는 것은 자신의 욕구가 좌절될 때 참을 수 없거나, 대안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반응양식으로 '유순성(manageability)' 기질 차원이라고 명명할 수 있

었다. 짜증을 내거나 우는 부정적인 정서반응은 유순성이 낮을 때 뿐 아니라 몸이 약할 때, 심리적 상처를 받았을 때도 수반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이 두가지 기질 차원은 양육하기가 힘든 아동 뿐 아니라 수월한 편의 아동에서도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많이 까다로운 편이지요. 특히 형에 비해서 형은 수월한데 애는 참 고생시킨다 싶어요. 가장 힘든 건 짜는 거예요. 아마도 어렸을 때 부터 많이 짜는 편이라 지금도 그런지... 참 듣기 싫어요. 자꾸 짜니까 이마에 주름살까지 벌써 생겼어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하는 편이라 남자답게 화통해서 좋다 싶다가도 원체 기분이 안 좋은 듯 표현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기니까 힘들어요. 다른 것들은 커 나가면서 많이 좋아지고 있고 또 오히려 저래야 싶다고 하는 식으로 행동해서 괜찮은데요...

(매우 힘든 편, 4세 남아의 어머니)

다른 건 모르겠는데 작은애는 크면서 더 힘든 것 같아요. 작은애가 고집이 세니까 지고집대로 안 되면 짜고 멍갯 부리고 그러거든요. (아주 힘든편이에요?) 그냥 힘든 편이죠. 큰애는 말귀를 알아 들으니 뭐라하고(야 단치고) 엄마가 아니다 하면 받아들이는데... 작은애는 터울이 2년 정도 밖에 안 나니까 위에 애는 어른처럼 키워 지더라고예. 밑에 애가 있으니까, 무조건 큰 애를 야단치게 되고 밑에 애가 잘못해도 나는 오빠야니까 어째야 된다 하니까 아무래도 밑에 애가

고집이 좀 세지고 알면서도 그런 일에 부닥치면 큰애를 야단치게 되고...

(힘든 편, 6세 여아의 어머니)

몸이 약해서요. 뭘 하지를 못 해요. 제가 피곤할 때는 노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놀기는 놀아야 되겠는데 몸이 안 따라 주니까 그러다가 눈물이 핑 돌고 자거든요. 내가 알지예. 잠이 와서 그런다는 걸 알면서도 잠 올때 지마음 대로 안 되면 짜증을 내거든요. 그 때 내가 막 신경질이 나가지고 고함을 지르죠.

(수월한 편, 6세 여아의 어머니)

이 외에 활동 수준이 높거나 남자아이답게 용기있고 활달하지 못할 때, 또 밥을 제대로 먹지 않거나 반찬투정을 하는 것이 각 6회, 4회, 5회씩 지적되었다. 기타 특성들로는 잠을 깊이 자지 않는다는 경우와 정리정돈을 고집스럽게 하려하거나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민한 성격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후자의 경우를 제외한 소수의 지적 요인들은 대체로 키우기가 수월한 편에 속하는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 의해 보고된 특성들이었다.³⁾

애는 수월해요. 반찬은 아무거나 잘 먹고 그냥 잘 놀고 생전 우는 것도 없고, 그래서 수월해요. 남들이 난 애를 그냥 키운다고 그래요. 우리 ○○는 너무 움직이니까 힘들죠. 어디 외출해도 엄마 곁에 안 붙어있고 지멋대로 지가 호기심 나는 건 봐야 되니까 그게 힘들어요. (중략 지금도 아빠 차 타고 가면 앞에 갔다 뒤에 갔다 막 하거든요. 내가 억

3) 전체 지적된 반응빈도는 연구대상 어머니의 수인 36보다 크다. 왜냐하면 형제를 둔 어머니의 경우 자녀 별로 어려운 특성을 달리 보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압하면 조용히 하고 그래요.

(매우 수월한 편, 4세 남아의 어머니)
남자는 굉장히 쾌활하고 여자는 수줍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애들은 좀 바뀐 것 같아 예. 야(동생)는 더 활발하고 저거 오빠는 내 성적으로 수줍어 하고. 무서움도 애는 안 타거든예.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갈 때 불이 꺼져 있으면 오빠는 못가거든예. “○○야, 오빠 무서워서 못 간단다. 오빠하고 가서 책 좀 갖고 와.” 하지예. 이러니까 우리 애들 성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지예.

(수월한 편, 6세 남아의 어머니)

한가지 불만은 밥 먹는 게 야채같은 건 안 먹고 편식 그런거 있지예. 지 안먹는 건 안 먹고...

(많이 수월한 편, 6세 남아의 어머니)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자녀가 자녀의 극단적인 기질 특성을 보일 때 어머니는 어떻게 지각할 것인지와 양육에서 가장 까다롭다고 지각하는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특성을 밝히는데 목적을 두었다.

자녀가 극단적인 기질 특성을 보일 경우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을 요약하면, 자녀가 새로운 환경·상황 또는 낯선 이에의 접근을 어려워할 때 그리고 행동에 수반되는 정서반응이 부정적일 때 예외없이 모든 연구대상 어머니들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힘들어할 것으로 밝혀졌다. 그 이유는 자녀의 적응성과 정서성이 극단적으로 낮을 때 어머니가 추가적인 양육행동을 해야 함으로써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수

면 불규칙성 역시 대다수의 어머니들에게 생활의 불편을 느끼게 하며, 특히 자녀에게 규칙적인 생활이 요구될 때 더욱 어머니를 불편하게 하는 기질 특성으로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자녀 신체 움직임의 활발함과 자극에 대한 민감한 반응 행동은 어머니를 힘들게 하지 않거나 적어도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지각하는 어머니의 수는 전체 36명 중 활동성이 10명, 반응성이 22명으로 다른 극단적인 기질 특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먼저 적응성 차원에 관한 어머니의 보고 중 자신이 지각하는 자녀의 특성이 형제간의 특성 비교에 의한 상대적인 평가일 수 있다는 반응은 어머니의 자녀 기질 지각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한다. 어머니에 의한 기질 특성 평정이 이같은 어머니의 주관적 요소에 영향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기질측정의 타당성과도 관련되어 경험적 기질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왔던 문제이다. 그러나 어머니의 지각이 갖는 지각적 편파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할지라도 ‘바라보는 자(eye of beholder)’ 이상으로 어머니에 의한 평가는 객관적 요소를 가지며 기질 평가자간의 일치도 분석을 통해 유의한 수렴 타당성이 보고된 데 근거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천희영, 1991a; Bates, 1990; Sanson et al., 1994). 따라서 이같은 본 연구에서의 어머니 반응처럼 기질 평가를 요구받았을 때 자신이 주관적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스스로의 인식을 보여주는 반응은 단순히 어머니 평가의 비신뢰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기 보다 오히려 신중한 평가의 태도를 보여주는 반응으로서 어머니 반응의 신뢰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기여한다고 생각된다. 적응성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어머니들이 활동성의 긍정적인 면을 언급했음은 주목된다. 실제로 아동의 기질과 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들에서 나온 활동성 차원의 역할에 관한 상반된 결과들은 활동성 차원에 대해 이같은 어머니들의 지각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되었다. Klein(1980), 김영희(1986), 원영미(1989), 천희영(1993) 등은 아동의 높은 활동수준이 집단 생활에서의 부적응을 예언해주는 변인으로 보고 하였으나, 신체적 활동성이 유치원에서의 적응을 돕거나(이희선, 1995; Parker-Cohen & Bell, 1988) 아동의 자기 지각 능력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보고(최영희, 1995)도 있다(천희영, 1996). 본 연구에서 어머니들이 놀이 장면에서의 활동성이 갖는 문제점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음에서 시사하듯이, 질문에 포함된 활동성 문항의 행동맥락이 무엇이었는가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어머니나 교사의 질문에 기초한 이 연구들에서의 결과가 상이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아동의 적응과 관련한 연구들은 까다로운 기질의 개념에서처럼 높은 활동수준이 갖는 부정적인 의미 외에도 긍정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활동성과 생리적 규칙성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주목되는 어머니의 반응은 상황이나 환경조건에 따라 어머니가 힘들다고 지각하는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활동성의 경우 놀이장면 외에서의 활발성이 아파트라는 주거환경에서 신체 움직임의 통제 필요성을 높여 어머니가 힘들게 된다는 것이었다. 또 수면의 불규칙성이 규칙적인 유치원 등원 시간과 관련될 때 어머니의 어려움이 더 커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발달맥락적 입장(Lerner, 1986)과 비교문화적 기질 연구의 필요성(Super & Harkness, 1986)에서 이미 이론적으로 지적된 기질과 맥락간의 상호작용을 잘 보여주는 것이며, 특히 Super와 Harkness(1981)의 연구결과(Belsky,

Lerner & Spanier, 1986)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생리적 규칙성 차원이 섭생이나 배설의 규칙보다는 수면의 규칙성을, 반응성 차원이 반응의 강도보다 반응의 민감성을 중심으로 언급된 것은 본 연구에서 채택한 5개 기질차원 즉 우리나라 아동에 적절한 기질 차원들로서 구성된 연구용 기질평정척도의 개발 및 수정과정(천희영, 1991, 1992)에서도 이미 시사된 것이었다. 왜냐하면 5개 기질차원별 하위 소속문항들을 선별하기 위한 요인분석 결과, '생리적 규칙성'에 소속된 4개 문항 모두가 수면의 규칙성에 관한 내용을 질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6개의 '반응성' 문항 중 4개가 반응의 민감성에, 2개가 반응의 강도에 관한 문항이었으며 그나마 그 두 문항의 요인 부하량이 상대적으로 낮아 반응의 민감성 보다 전체 반응성에 대한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두 차원에 관련하여 각각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려면, 먼저 생리적 규칙성 차원의 경우 진예봉(1993)이 생리적 규칙성을 섭생, 수면, 일상습관들의 하위차원으로 세분화한 DOTS-R로써 5세에서 12세 아동의 기질을 측정하고 어머니 자녀 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즉 섭생의 규칙성은 5세와 6세에서 자녀만족도 일부 영역과의 유의한 관계를 보일 뿐 다른 영역에서는 전혀 유의한 관계가 없었으므로 섭생의 규칙성이 기질적 특성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다.

반응성 차원은 반응의 민감성 중심으로 언급되는데 나아가 이 특성이 긍정적으로 지각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동의 인지적 발달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어머니들은 까다로운 특성으로 지각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천희영의 연구들(1992, 1993,

1995)에서 높은 반응성이 아동의 적응과 정적인 상관을 보인 결과에 대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즉 아동이 주변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갖는 것은 어머니의 반응성 기질에의 요구와도 좋은 적합성을 갖게하며, 어머니와의 관계를 좋게할 뿐 아니라 동료 및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는 사회적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어머니가 까다롭다고 지각하는 기질 특성을 묻는 과정에서, 극단적인 기질 특성이 아동 자신의 적응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이 모든 기질 차원에서 예외없이 지적되었다. 즉 적응성과 정서성은 사회적 관계의 형성에, 생리적 규칙성은 신체 적응에, 활동성은 신체 및 사회적 적응에 그리고 반응성은 인지 발달 및 사회적 적응에 관련하여 아동을 힘들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굳이 개별적 접근에 의한 까다로운 기질 유형의 특성을 연관시키지 않더라도 아동 스스로를 까다롭게 하는 내재적 특성으로서 기질을 개념화하는 것을 뒷받침해주며 나아가 이러한 기질 특성이 주로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미칠 수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함께 자녀의 극단적인 기질 특성이 어머니에게 까다롭게 또는 어렵게 지각되며 이것이 어머니와 자녀간의 순환적 관계에서 자녀의 사회적 적응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내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녀의 극단적인 기질 특성은 어머니가 까다롭게 지각하는 기질 특성과 아동 스스로가 까다롭게 하는 기질 특성간의 일치도를 높게한다고 볼 수 있었다.

두번째 연구문제인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서 가장 까다롭다고 지각하는 자녀의 특성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자녀를 키우기 힘든 아이라고 지각하는 어머니는 물론 수월한 편이라고 응답한 어머니 역시 부정적인 정서반응과 유순하지 못한 반응이 어머니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특히 부정적인 정서반응은 고집을 피울 때도 수반되어 난다는 점에서 어머니에게 까다롭다고 지각되는 주요 특성임을 알 수 있었다. 소수의견으로 성격적인 특성에 관련되는 아동의 특성도 지적되었으나 신체 움직임의 활발성과 잠버릇에 관한 언급은 기질 특성 중 활동성 및 생리적 규칙성과 연관이 되는 특성들로 생각되어 자녀의 특정 기질적 반응패턴이 어머니로 하여금 까다롭게 지각하도록 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유순하지 않고 고집을 피운다는 것은 아동이 욕구좌절을 극복하는데 있어서의 까다로움을 반영하는 것으로 NYLS에서 제시된 기질차원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에서 유사한 기질 구성차원이 밝혀진 바 있다. Sanson과 그의 동료들(1994)이 3세에서 7세 오스트레일리아 아동을 대상으로 기질의 구조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첫 번째 요인으로 비유통성(inflexibility)이 발견되었고, 기질 측정도구인 RITQ와 TTQ에서의 협동-유순성(cooperation-manageability), 성마름(irritability) 요인들의 조합된 속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비유통성은 까다로운 기질 정의에 따른 부정적인 정서성과 유순함의 문제를 함께 가짐으로 해서 까다로움의 핵심이 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

기질의 구조 분석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밝혀진 4가지 요인의 하나이며 학령기 아동에서도 제1 기질 구성요인인 정서성 차원(McClowry, 1995)에서 부정적인 반응은 까다로운 기질 유형의 특성으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특히 '괴로움의 목록'(Bother Index)으로써 어머니가 까다로운 기질을 나타내는 행동에서 괴로움을 받는 정도를 점수로 측정했던 Sanson과 그의 동료들(1989)은 어머니의 사회계층과 관계없이 부정적인 기본에 대해 가장 높은 괴로움 점수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어머니가 까다롭다고 지각하는 아동의 극단적인 기질 특성과 어머니가 가장 까다롭게 지각하는 자녀의 특성에 관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아동 스스로의 적응을 저해하는 까다로운 기질 유형의 특성을 추론할 수 있다.

반응성과 활동성 차원에서 예외적 응답이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3~7세 아동의 5개 기질 구성차원 모두가 아동 스스로는 물론 어머니를 까다롭게 하는 기질 특성으로 볼 수 있었고,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자녀의 대표적인 특성 역시 기질적 특성인 낮은 유순성과 부정적인 정서반응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바로 이 차원들이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즉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은 활동성, 적응성, 생리적 규칙성, 반응성과 정서성 및 유순성 등의 6개 기질 차원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NYLS식 기질 유형 분류 방법에서처럼 기질 차원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몇 개 이상의 차원에서 1 표준편차 이상의 극단적인 특성을 보일 때 까다로운 기질로 판단하는 방식(유명희, 1991; 최영희, 1990)을 적용하여, 과연 이들 6개 차원 중 몇 차원 이상이 기질 판단의 근거가 되는가에 대해선 물론 언급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아동에서의 까다로운 기질은 활동의 수준이 높고, 낮선 상황이나 낮선이에의 적응이 어려우며, 잠자는 시간과 깨는 시간이 불규칙하고, 자극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정서적으로는 부정적인 편이고 욕구좌절에 대해 유순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특성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참고로 천희영(1992)의 연구에서 NYLS에서의 까다로운 기질유형과 개념적으로 흡사한 조절결함형은 앞서의 5개 차원 모두에서 평균보다 부정적인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그렇다면 기존의 NYLS식 까다로운 기질 유형

특성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먼저 NYLS의 까다로운 기질에서의 반응의 격렬함을 제외한 생리적 주기의 불규칙성, 새로운 자극에 대해 철회적이고 낮은 적응성, 부정적인 기분의 특성 즉 4개 기질차원과 우리나라 아동에서의 까다로운 기질을 구성하는 적응성, 생리적 규칙성, 정서성의 3개 차원은 공통된 특징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아동의 격렬한 반응 특성은 우리나라 아동에서는 어머니나 아동 자신을 까다롭게 하는 것으로 지각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반응성 기질 차원에 관한 개방적인 질문에서 어머니들은 어렵게 지각되는 기질 특성으로 격렬함은 거의 언급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반응의 강도가 커 반응특성을 확연히 드러내는 것이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보고 긍정적인 특성으로 언급하는 어머니도 있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반응의 강도가 약하다면 오히려 어머니가 까다롭게 지각할 것임을 암시한다. 유사한 결과를 Sanson과 그의 동료들(1989)의 연구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은 부정적 기분과 함께 낮은 반응 강도가 괴로움 점수를 높게 한 주요 차원이라고 보고하고, 부모 양육실제와 아동 기질 간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 결과로 해석하였다.

기존의 까다로운 기질과 우리나라 아동에서의 까다로운 기질의 또 다른 차이점은 활동성과 유순성의 기질 차원이 추가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결과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연령에 따른 기질의 불연속적 발달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까다로운 기질 유형이 유아기 중심으로 특징지어진 것이고 아동의 발달에 따라 기질의 구성요인이 바뀌듯이 까다롭다고 간주되는 세부특징들 역시 변화한다는 것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Carey, 1986). 활동성 차원과 관련하여 천희영(1992)은

학령기 초 아동의 기질 유형 차이를 대변해 주는 기질 차원으로 활동성을 보고한 바 있으며, 대조적으로 학령전기에는 정서성과 반응성을, 3~7세 전 연령에서 공통적으로 생리적 규칙성과 적응성을 들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진예봉(1993) 역시 학령전기에서 학령기에 걸친 아동의 활동수준이 어머니의 자아 만족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활동성이 유아기 이후의 기질 유형의 분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Carey(1978; 유명희, 1991에서 재인용)의 지적은 학령전기와 학령기에 해당하는 본 연구대상 아동의 활동성이 까다로운 기질의 판단에 기여하는 기질 차원이라는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로는 아동의 발달 주변의 심리사회적 맥락이 변화됨으로써 임상관련 문제를 일으키는 까다로움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특히 유순성 차원은 아동의 성장에 따라 부모의 통제가 감소되고 아동에 대해 자기조절하도록 격려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반면 부모의 사회화 압력 또한 높아짐으로써(Carey, 1986), 아동의 부적응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의 문화적 맥락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레일리아 3~7세 아동에게서 기질을 구성하는 제 1 요인으로 유순성과 유사한 비용통성 요인이 나타난 것(Sanson et al, 1994)은 이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아동의 사회화 과정은 온순하고 조용한 아동 자향적이라는 점(이원영, 1986)을 고려할 때 유순성과 밀접한 아동 개인의 자율성에 따른 요구는 어머니와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이 우리나라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특성이 NYLS에서 제시된 것과 차이를 갖는다면 까다로운 기질이라는 명칭 자체의 재고 또한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까다롭다는 명칭은 까다로운 기질이 아동의 내적 특성보다는 어머니 등에 의한 사회적 지각 특성이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Bates, 1980). 또 그 명칭이 부모로 하여금 아동의 적응적 문제는 물론 부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기대하도록 하는 부정적인 명칭이라는 데 문제를 갖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Rothbart, 1982). 따라서 대안적인 명칭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심리생물학적 특질을 외현적으로 반영하는 반응양식 및 그 반응양식을 스스로 조절하는 형태에서의 개인차로 기질을 개념화 할 때, 그 반응양식과 반응양식의 자기조절이 어떠한가를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명칭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천희영, 1992). 또한 아동의 여러 기질 차원 특성 중 까다로운 기질과는 관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있을 수 있으며, 까다로운 기질의 특성을 결정짓는 중요 기질 차원이라도 상황에 따라 그것이 아동에게 유익하거나 유익하지 못한 것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유용성(cost-benefits)' 접근(Rothbart, 1982)에 비추어 볼 때 명칭은 객관적이며 개인의 기질 특성을 존중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소수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면접하였으므로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또 본 연구에서 채택한 5개 기질 차원들이 우리나라 아동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차원으로 확인된 것이었으나, 까다로운 기질과의 비교를 위해 NYLS에서 채택하였던 9개 차원을 함께 고려하여 면접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덧붙여 자녀의 극단적인 기질 특성에 따른 어려움을 가정하여 답하도록 하였으므로 현실성이 부족한 응답을 얻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데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에서의 까다로운 기질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조화의 적절성 모델의

검증을 비롯한 까다로운 기질과 아동의 적응관련 연구에서의 정확한 해석을 위한 자료의 제시는 물론 나아가 임상적인 장면에서의 아동에 대한 기질적 이해와 도움을 주기 위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3세에서 6세 아동의 어머니는 자녀의 기질 특성 중 낮은 상황이나 낮은 사람에 대한 낮은 적응성, 수면의 불규칙성, 부정적인 정서반응, 높은 활동수준 등에 대해 까다롭다고 지각한다. 높은 반응 민감성은 자녀를 위한 긍정적인 특성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까다로운 특성으로도 지각된다.

둘째,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서 가장 까다롭다고 지각하는 특성은 부정적인 정서반응과 낮은 유순성과 같은 기질 특성이다.

셋째, 한국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은 활동성, 적응성, 생리적 규칙성, 반응성과 정서성 및 유순성 등의 6가지 기질 차원으로 특징지어진다.

참 고 문 헌

- 김영희(1996). 기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적응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7(2), 19-32.
- 신옥순(역)(1991). *교육 연구의 새 접근*. 교육과학사.
- 원영미(1989). 유아의 기질 및 그 관련변수와 유치원 아동의 적응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명희(1991). 온순한 유아와 까다로운 유아의 울음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과 반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원영(1986). *부모교육론*. 교문사.
- 진예봉(1993). 부모가 지각하는 아동의 기질과 자녀만족도 수준 및 상호관계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천희영(1991). 아동용 기질 측정도구의 개발연구. *아동학회지*, 12(2), 78-93.
- 천희영(1992). 한국 아동의 기질 유형화와 어머니 양육태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천희영(1993a). 아동의 기질과 사회적 능력 관계에 대한 연구. *아동연구*, 제2집, 19-31.
- 천희영(1993b).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아동학회지*, 14(2), 1, 17-34.
- 천희영(1995). 아동의 기질과 맥락 적응의 관계 I :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기질 및 기질의 적합성과의 관계. *아동연구*, 제4집, 12-26.
- 천희영(1996). 아동의 기질과 맥락 적응의 관계 II : 아동의 기질 적합성과 어머니의 기질 및 사회적 능력의 관계. *아동연구*, 제5집, 7-21.
- 최영희(1990). 아동의 기질과 모-자 상호작용과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ates, J. E. (1980). The concept of difficult temperament. *Merrill-Palmer Quarterly*, 26(4), 299-319.
- Bates, J. E. (1987). Temperament of infancy. In J. D. Osofsky(Ed.). *Handbook of infant de velopment*. NY: Wiley.
- Bates, J. E. (1990). Conceptual and empirical linkages between temperament and behavior problems: A commentary on the Sanson, Prior, and Kyrois study. *Merrill-Palmer Quarterly*, 36

- (2), 193-199.
- Bates, J. E., Freedman, C. A. E., & Lounsbury, M. L. (1979). Measurement of infant difficultness. *Child Development, 50*, 794-803.
- Belsky, J., Lerner, R. M., & Spanier, G. B. (1984). *The child in the family*. NY: Random House.
- Cameron, J. R. (1978). Parent treatment, children's temperament, and risk of childhood behavioral problems: 2, Initial temperament, parental attitude, and the incidence and form of behavioral proble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48*, 140-147.
- Carey, W. B. (1986). Clinical interactions of temperament: Transitions from infancy to childhood. In R. Plomin & J. Dunn(Eds.). *The study of temperament: Changes, continuities and challenges*. Hillsdale, NJ: Erlbaum.
- Hetherington, E. M., Stenley-Hagan, M., & Anderson, E. R. (1989). Marital transitions: A children's perspective. *American Psychologist, 44*(2), 303-312.
- Lerner, R. M. (1986). *Concepts and theories of human development*. NY: Random House.
- Lerner, R. M., Lerner, J. V., Windle, M., Hooker, K., Lerner, K., & East, P. L. (1986). Child and adolescents in their contexts: Tests of a goodness of fit model. In R. Plomin & J. Dunn (Eds.). *The study of temperament: Changes, continuities and challenges*. Hillsdale, NJ: Erlbaum.
- McClowry, S. G. (1995). The development of the school - age temperament inventory. *Merrill-Palmer Quarterly, 41*(3), 271-285.
- Prior, M., Sanson, A., Carroll, R., & Oberklaid, F. (1989). Social class differences in temperament ratings by mothers of preschool children. *Merrill-Palmer Quarterly, 35*(2), 239-248.
- Rogoff, B., & Morelli, G. (1989). Perspectives on children's development from cultural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44*(2), 343-348.
- Rothbart, M. K. (1982). The concept of different temperament: A critical analysis of Thomas, Chess, and Korn. *Merrill-Palmer Quarterly, 28*(1), 35-40.
- Sanson, A., Prior, M., & Kyrois, M. (1990). Contamination of Measures in temperament research. *Merrill-Palmer Quarterly, 36*(2), 179-192.
- Sanson, A. V., Smart, D. F., Prior, M., Oberklaid, F., & Pedlow, R. (1994). The structure of temperament from age 3 to 7 years: Age, sex, and sociodemographic influences. *Merrill-Palmer Quarterly, 40*(2), 233-252.
- Super, C. M., & Harkness, S. (1986). Temperament, development, and culture. In R. Plomin & J. Dunn(eds.). *The study of temperament: Changes, continuities and challenges*. Hillsdale, NJ: Erlbaum.

NJ: Erlbaum.
 Thomas, A., & Chess, S. (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Y: Bruner/Mazel.
 Thomas, A., Chess, S., Birch, H. (1968). *Temperament and behavior disorders*

in children. NY: New York University Press.
 Thomas, A., Chess, S., Korn, S.(1982). The reality temperament. *Merrill-Palmer Quarterly*, 28, 1-20.

부 록

〈부록 1〉 기질차원별 극단적인 기질 특성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N=36)

기질의 차원	어머니의 지각	
	긍정적인 지각*	부정적인 지각**
적응성	36(100.0)***	0(0.0)
활동성	3(8.3)	33(91.7)
생리적 규칙성	8(22.2)	28(77.8)
반응성	22(61.1)	14(38.9)
정서성	0(0.0)	33(100.0)

* 양육하기 힘들지 않거나 힘이 들더라도 기질 차원의 긍정적인 특성을 지적한 경

** 양육하기 힘들지 않음

*** ()속은 백분율

〈부록 2〉 어머니가 가장 까다롭다고 지각하는 자녀의 특성별 반응빈도(N=36)

자녀의 특성	반응빈도
부정적인 정서반응	12(27.9)*
낮은 유순성	12(27.9)
높은 활동수준	6(14.0)
낮은 발달성과 용기	4(9.3)
식습관 행동	5(11.6)
기 타	4(9.3)
전 체	43(100.0)**

* ()속은 백분율

** 형제를 둔 어머니의 경우 자녀별로 어려운 특성을 달리 보고하기도 했기 때문에 전체 반응빈도는 N보다 크다.